

제 1회 녹용과학심포지엄을 마치고...



전병태/전국대학교 한국녹용연구센터 소장

녹용에 관련된 사람은 대부분 녹용과 무슨 인연들이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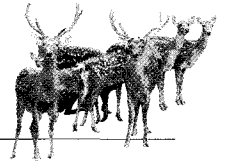
양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양록을 하게 된 계기가 '녹용을 먹고 그 효험에 반해서'라는 것을 듣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심포지엄 발표자의 한분인 이화여대 전길자교수님도 녹용에 관한 연구의 동기가 '15년 전 녹용을 복용하고 그 효력에 놀라서'라는 얘기를 발표의 서두에서 들을 수 있었다. 또 한분의 발표자인 한의사 안덕균박사님도 한의대 학생시절부터 녹용의 효능을 직접 체험하고 그때부터 녹용을 넣어 처방을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였다. 그런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녹용에 대해 듣고 말하고 물어보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심포지엄의 큰 의의 중 하나였던 것 같다.

본인은 17년전 건국대학교 실습농장장 시절, 처음으로 사슴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사슴에 대한 사양관리지침서 한편이

없는 것에 매우 놀라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사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를 시작하며 또 놀랜 것이 우리나라에 사슴연구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을 듯한 연구기관에 연락을 하여 함께 연구할 동지들을 구해보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를 하였다. 그간 양록에 관련되어있던 교수 몇 분을 찾아 뵈고 협조를 구해봐도 헛일이였다.

소비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 소비량은 대부분이 수입 녹용인 나라에서, 사슴사육농가도 적지도 않으며 더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나라에서, 왜 국산 녹용의 생산과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는 것일까?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였다.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첫 연구에 착수한 것이 건국대학교 김창원교수 연구실과 우리 연구실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우리연구실은 충청북도 내 목장을, 김교수님팀은 경기도 일원



목장을 방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여 학술지에 투고를 하였다. 이 조사로서 우리나라의 사슴사양에 대한 열악함을 수치적으로 절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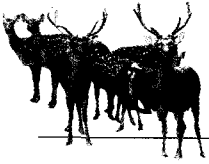
이러한 국내 상황 파악과 동시에 뉴질랜드, 영국 등 선진 사슴 연구국가를 방문하여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참으로 놀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사슴에 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많은 국가들이 사슴을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 뉴질랜드와 러시아는 산업에 직결하는 연구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을 알았다. 알면 무서워지듯,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사슴산업의 앞날이 더욱 걱정되었다.

그래서 본인은 사슴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생각을 하여 1991년 이상무박사, 백인철조교 등 대학원생들과(그 당시 대학원생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 시켜 언제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하나사슴연구소를 개설하였고, 때마침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분상호교수가 합세하면서, 우리연구실은 모든 연구체제를 사슴연구로 바꾸어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양육관련기관을, 또 국가 축산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사슴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며 관심을 유도하였으나, 그다지 좋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고마운 양육 연구자가 한사람 있다. 축산기술연구소에 방문하였을 때 유일하게 사슴연구를 하고 있는 한분을 만났는데, 지금도 혼자서 열심히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김상우연구사다. 우리나라 전체 국가 연구기관에서 김 연구사가 유일한 사슴연구자이고, 우리 녹용연구센터가 유일한 대학의 연구기관인 셈이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도 사슴 연구자가 없는가, 왜들 사슴연구를 기피하는가를 정리해 보니 우선 사슴연구는 다른 가축에 비해 연구조건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다음은 연구후원기관에서 사슴연구는 지원 대상 외의 항목으로 취급받는 점, 그리고 정부기관에서의 무관심, 더 솔직히 말하자면 관심을 갖도록 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 더욱이 정작 생산자 단체가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못한 것인지, 알고 싶지 않은 것인지, 발전의 가장 커다란 힘인 연구에 대해 매우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떤 커다란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예로, 국립 녹용연구소의 탄생) 사슴연구자의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란 물론 관련산업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우의 연구는 한우사육가만을 위해 연구하는 것인가? 물론 아니



다. 이는 한우산업의 보호 및 발전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고, 연구자는 그 연구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또는 의뢰를 받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야에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서도 한다. 어찌 보면 연구영역에 있어서 사육가 들은 수혜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필요한 연구의 의뢰나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후원 및 독려는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주체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양육단체에게 꼭 하고싶은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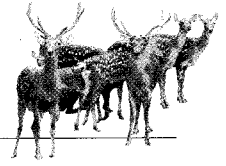
연구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연구의 주체자를 움직이게 하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결과는 모두 양육인에게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행정담당 주체자들에게도 다른 가축처럼 녹용생산연구를 포함하여 양육업을 후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사슴이 주 축종이 못 되어있는 만큼 다른 가축보다 배가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여준 나쁜 인식의 만회까지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구잡이식이 아닌 전술·전략적 지혜를 짜내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세계의 양육업은 더욱더 치열한

경쟁 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육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산녹용의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설명해줄 우리만의 독특한 사양방식이 있는가? 이러한 사양방식임으로 다른 나라의 녹용과 우리 녹용과는 이런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 지금은 비록 없지만 곧 그리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가?

10년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 우리는 그때 한국의 양육업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래서 현재 얼마만큼 발전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 필자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연구실만 해도 10년 전부터 하고자 했던 연구들의 10분의 1도 못했고, 앞으로 십년이 지난다 해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동물실험이란 실내실험과 달리 실험조건과 결과의 도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하는데 반해 사슴은 연구 인력마저 적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사슴연구를 시키자니 사슴은 취업할 전문기관조차 없어 이 또한 마땅치 않다. 그래서 사슴연구자를 찾아 공동연구를 하여 연구의 속도를 높이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며, 양육업이 빨리 성장, 산업화되어 사슴연구전문가가 취업할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 즉, 사슴연구자의 확대와 양육업의 산업화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의도에서 설립된 것이 우리 건국대학교의 한국녹용연구센터인 것이다. 본 연구센



터는 현재 국산녹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주된 테마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녹용제품을 개발하여 기업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녹용소비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슴사양은 물론, 녹용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사슴대학 또는 양록전문인력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나라 양록인을 세계 최고의 과학적 사양가로 또는 경영인으로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기술, 연구, 경영정보 등을 배우고 교환할 수 있는 행사의 주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센터가 계획한 연중행사 중 하나였으며 첫 행사였다. 첫 행사인 만큼 여러 가지로 많은 망설임과 걱정이 동반됐던 것도 사실이다.

초점을 어디에 맞출까, 주제를 무엇으로, 장소는 어디에서, 얼마나 참석할까 등등... 심포지엄이 양록인들을 위한 것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모르는 녹용연구자가 어딘가에 있는지 이 기회를 통해 찾아냄과 동시에 관련 영역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끌어내는 것, 또 마스크와 많은 일반인들에게 녹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 등 욕심을 많이 부린 행사였다. 그래서 발표주제를 매우 크게 계획하였고 그 중에서도 연구영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자를 색출하기

위해 한의학, 약학, 농축산학, 화학, 의학 등 관련 연구영역의 연구자는 물론 학회 연구단체 등에 1,800장의 초청장을 행사 보름전에 도착하도록 하였으며 행사 몇일전에는 잊은 사람들을 위해 이메일과 각종 마스크를 통해 다시 홍보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영역의 참석자는 겨우 30여명에 불과했다. 이 결과로 볼 때 역시 이 방면의 연구에 관심이 참으로 적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준비위원들은 양록인들의 참석을 포함, 전체 참석인원을 120~150명을 예상하여 모든 준비를 여유 있게 200명에 맞추었는데 300명이 넘는 많은 인원 참석에 기쁨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관계자들의 예상을 훨씬 웃돈 수치였다. 전날 협회를 통해 양록인분들이 많이 참석할 것을 미리 연락 받고 주제 발표자들에게 강연을 쉽게 해 달라고 당부해 두었지만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양록인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앞으로 발표자들은 더욱 쉽게 양록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격차를 좁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양록인분들이 좋은 강연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외산과 보다 차별화된 녹용을 생산, 외산녹용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과 본인이 개최자이던 사람으로 활동한 두 국제국제심포지엄(1994년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



터 주관; 특수동물의 연구와 활용방안, 서울), (2000년 알버타대학 녹용연구센터 주관; 녹용과학과 생산기술, 캐나다 벤프)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행사는 당분간 두 형태로 나누어, 한가지는 연구자를 위한 연구회 형태로, 또 한가지는 양록인만을 위한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제1회 녹용과학심포지움 참석 양록인 여러분께

국내 양록인 여러분 및 사슴 녹용연구자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속에서 제 1회 녹용과학심포지움이 대단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양록인 여러분의 진지한 참여의식과 끝나는 시간까지 열기에 찬 청취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에서 많은 힘을 얻었고 보람 역시 느꼈으며, 막중한 책임감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록인들이 있는 한 우리 나라의 양록업은 매우 발전을 하겠구나, 매우 희망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심포지엄이 끝난 지금까지도 머리 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최초 참석자가 적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그간 준비하느라 애쓴 우리 준비위원들이 허탈해 할까가 걱정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지나친 기우였음을 깨닫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분은 공식적으로 350명으로 집계되었

습니다. 많은 양록인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산, 춘천, 양평, 공주, 가평, 부여, 대구, 태안, 멀리서는 나주,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33명, 축산기술연구소 4명, 농업기술센터, 3명, 기업체연구소 5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매년 개최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내년부터는 양록인만을 위한 심포지엄을 별도로 개최,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자들과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양록인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동주최자 한국양록협회에 감사드립니다. 국내 양록인에게 금번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참여독려, 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조 담당, 각 언론사 취재 협조 및 보도자료 배포, 후원금 등 행사 전후에 걸쳐 물심양면으로 앞장서 노력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후원자인 농림부, 그리고 자진해서 협찬을 해 주신 신원F&C, 하나사료, NC BIOTEC, 영만교역, (주)마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양록인 여러분께 재차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 기쁨과 희망으로 맞이하시어 즐겁게 돈 많이 버는 양록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양록**